

2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고정관념

이노우에 (井上光貞, 1968: 15)는, 서기 58년 수(隋)가 중국을 통일 했을때, 스이코(推古)가 견수사(遣隨使, 수에 파견한 사절단)에다 많은 학생들과 승려들을 딸려 보냈으며, “그 후부터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국 으로부터 직접 문화를 받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고대 문화 발달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고 강조하기를 좋아하는 반면, 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되도록 감추려 하는 성향이 있다. 그 전형적인 예를, 저명한 일본인 경제학자 모리시마 (森島道夫, 1982: 20)의 『일본은 왜 ‘성공’했는가?』라는 책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명치유신(明治維新) 때 까지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일본은 중국 문화의 영향아래 있었다. 즉, 문화적인 자극과 고무(鼓舞)가 중국으로부터 직접 왔거나, 혹은 한국을 통해서 왔다.”

마지못해 아주 조심스럽게, 한국의 영향도 조금은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보통 모리시마 책에서 나오는 (1982: 21-30)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얼른 인용한다: “서기 370년께 부터 일본은 한반도의 남단을 점령하고 있었다. 미마나(任那)라고 부른 이 일본 영토는, 백제 및 신라에 인접해 있었으며, 신라는 북쪽으

로 고구려와 인접해 있었다. 일본은 이 무렵부터 백제와 신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들 두 나라는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 . . 소가(蘇我)와 모노노베(物部) 씨족들은. . . 당시 일본이 한국에 가지고 있던 이 식민지를 착취해서 부를 축적 했으며. . . 쇼오토쿠 태자(聖德太子)는. . . 미마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던 신라에 대한 공격도 계획 했었다. 그러나 이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가 사망한 뒤인 서기 662년, 일본은 마침내 그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 나카노오오에(中大兄)는 사이메이(齊明)의 황태자로 있을 때, 나당(羅唐) 연합군의 공격을 물리칠수 있도록 원군을 보내 달라는 백제의 절망적인 호소에 호응해서 대군을 한국에 파견했다. . . 그후 일본 정부는 도요토미(豊臣秀吉)가 1592-98년에 조선을 침략 할때까지 더 이상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다.”

모리시마의 이야기는, 그가 어렸을때 메이지(明治)식 역사 교과서에서 읽은 것을 어렵듯이 기억해서 써 놓은 것에 불과하다. 쿠노(1937: 193, 234, 235 & 242)가 써 놓은 것을 보면, 한일관계에 관한 일본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미마나(任那)를 보호령으로 설치한데서 부터 시작된다. . . . 7세기 이전, 한국 남부에 있었던 왕국 및 성읍(城邑)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일종의 종주국에 대한 조공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 . . 한국의 왕국들은 오래동안 일본 [야마토 왜] 국부(國富)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왕국들은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전통적 종주국에 대한 조공관계 때문에, 일본은 미마나를 위해, 또 백제 왕국을 위해, 심지어는 고구려 왕국을 위해, 위험스럽고 비용이 크게드는 원정군을 파견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 서기 663년에 백제가,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으며, 신라의 통치아래 통일된 한국의 지적(知的), 군사적 힘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 땅에서의 일본의 권위는 완전히 붕

괴되었다. . . 한국에 대한 권리를 재확립 하겠다는 [일본의] 야심적인 계획도 점차 살아졌다. 16세기 후반, 7년 동안 계속된 도요토미의 한국 침략은, 1598년 그가 노령으로 사망 함으로써 마침내 포기되었다. . . 1910년, 한국이 일본에 합병 되었을 때, 일본의 잡지 『역사와 지리』는. . . 한국 특집판을 발행했다. 이 특집판의 서문에서 편집 주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 혹자는 이 위대한 업적을 일본이 7세기에 상실한 한국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국가적 사건을, 단순히 일본이 옛날에 한국에 대해 보유했던 통치권을 되찾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제국 이천년의 영광된 생명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에키(佐伯有清, 1977)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토쿠가와(徳川)시대에 나타난 국학파(國學派)의 뒤를 이은 [메이지 시대]역사가들은, 메이지 정부의 정치적 정책에 추종해서, 원문주의자(原文主義者, textualists)들에 대해 맹렬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철저히 신봉하는 이들은, 한국 측의 사서는 훨씬 나중에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메이지 정부에 의해 국가 원수로 다시 옹립된 천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당시 정부가 견지하고 있던 한국에 대한 침략적인 정책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진구우(神功)의 이야기와 같은 전설적인 설화를, 역사적인 사실로 취급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메이지 정부 측에서도, 자기네들의 침략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사고를 획일적으로 조직화 하기 위해, 이와 같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견해를 교육 내용에 도입 시켰다.”

사실 메이지 정부는 일본 역사가들을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황당무계한 추리를 마음껏 하도록 만들었고, 자기 만족을 줄 수 있는 별의 별 역사적 가능성들을 생각해 내도록 만들었다. 쓰다(津田左右吉, 1966: 110-112)도 『일본 역사 연구에 있어서의 과학적 태도』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註. 12)

“일본의 국가 성립의 정세 라든가,
 황실(皇室)의 유래나 그 본질 . . . 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 .
 알려져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 까지도 무시한 . . .
 제 멋대로의 주장을 가진 자,
 혹은 역사를 정략(政略)의 도구로 삼으려는 자가,
 정치적 권력자의 지위를 차지하여, 그 권력을 농락하고,
 학도와 문필에 종사하는 자의 일부에도,
 그것에 영합 추종하거나,
 혹은 함부로 허위 미망(虛僞迷妄)한 설을 조작하여
 그것을 지지하는 자가 있고, 그 때문에
 학문적 연구가, 정치적 권력과 난폭하고 광적인 언론에 의해,
 심하게 압박 당하는 동시에,
 허설망설(虛說妄說)이 소리 높여 선전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현혹 되기도 하고, 혼란 되기도 했으며 . . .
 메이지의 어느 시기에는,
 고전에 대한 비판이 재벌 활발히 이루어졌고,
 황실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새롭고 자유로운 연구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그 곁에는 신토오(神道)와 국학(國學),
 혹은 유교의 사상을 이어 받아,
 그것을 고집하는 자가 있어서, 이런 연구에 반대 하거나,
 때로는 관헌(官憲)을 움직여서 그것을 억제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학문적 탐구의 정신이 약해지고 . . .
 혹은 그것에 손을 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 . . .
 저도 모르게 고루한 사상에 좀 먹히는 자가 생기게 되고 . . .
 학교 에서의 역사 교육은 . . . 진실이 아닌 지식을
 강제로 주입하고 있었다 . . .”

비토 마사히데(KEJ: 2. 102)는, 메이지의 왕정복고(王政復古) 1년

후인 1869년,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에 바탕을 둔 정책을 찬양하는 사관(史觀)을 지원 하기위해, 역사적 증거로 보일 만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편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설립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후일, 이 관청은 동경 대학교로 옮겨져서 사료편찬소(史料編纂所)라는 기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견해와 상충되는 생각을 가진 학자들은 탄압을 받게 되었다. 예컨대, 구메(久米邦武) 교수는, 천황제도를 지지하기 위해 종교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신토오(神道) 신앙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동경대학에서 쫓겨났다. 결과적으로 일본 에서는 역사가 점점 더, 국수주의(國粹主義)를 극단적으로 조장 하려는 국가에 의해, 한개의 정책적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다. 앞에서 인용한 쓰다(津田, 1966: 165)는 또 『일본 고대 국가의 성질』이란 저서에서:^(註 14)

“일본 고대 국가의 성질을 생각 하려면,
이 국가가 어떻게해서 나왔는지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으로는 아직도 그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문제이며,
그 주된 이유는, 연구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사상적인 또는 정치적인 권력이,
이런 문제의 연구를 억압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히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다”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록된, 수사적(修辭的)으로 과장된, 잡동사니 조각 기록들을 보고 영감을 얻은 일본 사학자들은, 미마나(任那)와 야마토 국가(大和倭)에 대해, 엄청난 분량의 허황된 이론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제조해서 집적해 놓았는데, 이것들은 한결같이, 모두 귀가 따갑게 들어 잘 알고 있는 그 똑같은 얘기를, 이리저리 변형 시켜놓은 것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렇게 취약한 기초 위에도, 것처럼 무리하게 쌓아 올려놓은, 그 모든 자위적(自慰的)인 주장들은, 결국 자체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허물

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에키(佐伯有清, 1977)에 의하면, “일본의 고대사 연구는, 제2차 세계 대전이후 놀랄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 . . 지금까지 핵심적인 고전의 하나로 간주되어 온 일본서기의 내용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후의 고대사 연구는, 학문세계가 사료(史料) 원전(原典)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은 믿을수 있지만, 고대 일본역사에 대한 일본서기의 기록은 믿기가 힘들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이 연구들은 또, 이제까지 역사적인 사실로 취급되어 온, 진구우(神功)의 한국 원정과 같은 전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일본 학자들이 기본적인 사료(史料)와 고고학적 자료를 재평가하고, 많은 새로운 이론들을 제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우리는 “일본 고대사의 연구는 바야흐로 새로운 탄생의 시점에 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에키의 말에 동의해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국학과 학자들의 신조(信條)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국민학교와 중학교 때 배운, 메이지 식 역사 교육 내용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노우에(井上光貞)는 1968년에 쓴 『일본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일본에서의 역사 연구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전쟁전의 그 강력했던 정치적 압력이 제거되고, 참된 비판적인 연구가 모든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문적 해방의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1942년 이전에 교육을 받은 많은 일본사람들이 요즘, 일본 역사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 옛날의 그것과 너무나 달라,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을 하고나서, 이노우에 자신은 그 해묵은 이야기를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井上光貞, 1968: 9-11): “4세기 중

업. . . 야마토 조정은 한국 남부에 미마나(任那)라는 식민지를 수립하고, 당시에 새로 창건된 백제와 신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했다. . .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비문 역시, 4세기말, 일본은 백제와 신라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와 싸웠다고 말하고 있다. . . 대략 4세기 초부터 야마토 조정은 강력해지기 시작 했으며, 그로부터 얼마 안지나서 야마토 군대는 큐우슈우(九州)를 평정했다. . . 일본이 4세기 후반에 한국에 진출하여, 남한의 땅덩어리를 빼앗고, 많은 기술자와 노예를 사로잡아 왔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 .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토록 많은 기술자와 노예를 한국에서 사로 잡아온 덕분에, 야마토 조정의 힘은 놀랍도록 강해졌다는 것이다.”

아오키(1974: 92n)는 “비록 최근의 비판적인 학문풍토에 의해, 내용이 풍부해지기는 했으나, 오늘날 일본 에서의 역사책 저술은 여전히 19세기적 시각의 영향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 일본인을 두고 말한다면,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란, 바로 오늘 이시간 까지도, 앞에서 언급한 모리시마(森島)의 수준, 다시 말해서 메이지 유신시대의 국민학교 교과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아오키(1974: 19)는 다시 말한다:

“(대부분의) 일본 역사학자들 사이에는,
일본 지배 계급이 일본 열도이외의 다른 곳에서 왔다는 이론을
절대로 받아 들일수 없는 마음의 장벽이 있다.
이 전통은 19세기에 민족주의적 학자들에 의해 구축된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역사를 문화 전파(傳播)의 한 결과로
받아 들이기 보다는, 차라리 세계로부터 고립된,
하나의 특이한 현상으로 간주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1945년에서 10년 이전으로만 가보더라도,
일본문명의 출발점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는 나타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보려고 했던 학자들이
직접, 간접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같은 연구에 대한 금제는 해제 되었으며,
 그후 부터는 아무도 섬나라 적인 편견에 구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아직까지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본 문명의 탄생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야마토 왜(大和倭)의 탄생”에 대한 일본사람들 태도는, 아오키가 말하는 “일본 문명의 출발점”에 대한 태도와 똑같은 것이다. 전쟁 전 일본 교육 당국이 행한, 야마토 왜의 기원에 대한 세뇌가 워낙 철저했기 때문에, 또 이 팃소적 민족주의의 정통적(正統的) 관행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경우 받게되는 처벌이 너무나 가혹했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도 그릇된 생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 까지도, 고분(古墳)시대를 전공하는 일본 역사가들 대부분은, 전쟁 전의 정통적 관행으로서 강요된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으며, 바로 이같은 사실이 이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진지한 탐구를 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밀러(1980: 105)는 “전쟁에서 일본을 패배로 끌고 갔던 그 팃소적 민족주의 지배자들에 의한 엄격한 사상 통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무가치한 허구들 가운데, 가장 오래 그 효력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세대의 일본학자들이 언젠가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그들의 연구를 계속 방해해 왔던, 그 고질적인 심리적 장벽에서 해방될수 있게 되기를 바랄뿐이다.¹

¹밀러(1980: 122-123)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이 일본제국의 일부였던 [1910년에서 1945년 까지의] 기간중에는, 당시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통 신조에 위배되는 한국측의 고고학적 증거를 공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 . .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학문적인 자유를 획득하자, 3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놀라운 진보를 이룩했다. 그러나 역시 일본에서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고루한 접근 방법과 사고의 틀을 떨쳐버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일은 아닌것 같다. 한일 양국에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특히 어려운 늙은 세대의

1950년대 중반에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 일본 위원회는 『인류 과학문화 발전사』의 편찬을 준비하는 국제 위원회와 협력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만들었다. 스에마쯔(1958)는 이 특별 위원회의 후원으로 작성되었고, 『세계사 저널』의 일본 역사에 관한 다섯번째 논문으로 발표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기 366년에서 371년 사이에, 한국의 남부지역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강화되었으며, 일본의 옛 기록에 나타나는 ‘미마나 정부(任那日本府)’가 출범했다. . . . 임나 일본부의 존재는, 당시에 백제와 신라에 병합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삼한(三韓)의 거의 모든 지역을, 일본이 직접 지배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본 사람들은 백제와 신라 두 나라도 일본의 정치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취급 했었던 것이다. . . . 신라의 한반도 통일은 한국 역사에 하나의 신 기원을 긋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서기 646년에 체결된 협정의 틀 안에서 발전했는데, 그 협정에 의하면 신라는 일본에 왕자를 보내야 하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연차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야 했으며, 또 일본에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부 일본 역사가들이 이런 종류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계속 자기 국민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있는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은 매우 어려운 관계를 지속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1960년, 외국의 출판사, 저자, 교육자들에게 일본에 대해 “좀더 정확”하고 “좀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국제 교육 정보 협회 라는것을 창설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영속적인 국제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초석이 된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동경 대학교 명예 교수 사카모토(坂本太郎)에게, 일본 천황에 대한 연구 논문 집필을 의뢰해서, 1984년에 출판했다. 그 논문에서 사카모토(1984: 19) 교수는 말한다: “4세기 종업 이후, 일본은 한반도 남단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모든 연구활동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의 미마나(任那)를 직접 지배했으며, 백제를 보호국으로 삼았다.” 사카모토 교수의 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일본 천황과 일본 국민은 모두 다 고대 야마토(大和) 사람들의 후손이다. 야마토 황족은, 일부 사람들이 이론을 세워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대륙으로부터 일본을 침공해서 원주민을 정복한, 다른 민족의 후손일 수가 없다. . . 토기(土器) 사용 이전부터 조오문(紉文)시대를 거쳐, 1만 년이 넘는 기간동안 형성된 일본 민족의 근본적인 특성은, 벼농사가 시작되고 철기가 도입되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천황과 그 신민의 일체성은, 이 기본적인 민족적 동일성에서 생긴 것이다. . . 일본의 천황들은 다른 정복민족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과 강한 종족상의 유대를 누릴 수 있었다.”²

²그러나 사카모토는 같은 논문에서(1984: 15), 간무(桓武, 재위 781-806년)의 어머니가 “한반도 백제왕의 후손이었다”라는 것과, 서기 815년에 편찬된 신찬 성씨록(新撰姓氏錄)에는, “수도 주변의 군현(郡縣)에 살고 있던” 지배 씨족들의 30퍼센트 이상이 “그 근원이 대륙에서 온 이민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순히 “토착 일본인들은, 이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차별없이 받아들였으며, 그들의 학문과 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했다. . . 곧 토착민과 이주민 자신들은 그들이 외국 태생이라는 것을 잊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